

어등산 스타필드 '탄력'...복합쇼핑몰 경쟁 가열

서진건설 상고 포기...신세계 선점효과 누릴듯

광주시 제3차 공모 방식 개발...롯데그룹 '신중모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신세계그룹이 구상중인 광주 스타필드 건립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진건설은 27일 광주지회 시민소통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광주시의 요구를 아무런 조건없이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세계그룹이 추진하기로 한 어등산 '스타필드 광주' 건립계획의 최대 걸림돌인 부지 문제가 일단 해소됐다.

스타필드 개발·운영사인 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 8월 쇼핑·문화·레저·엔터에 휴양까지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체류형 정통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광주(가칭)'를 어등산 관광단지에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신세계프라퍼티는 이르면 2024년 하반기 착공해 2027년 완공한다는 목표도 내놓았다.

그동안 스타필드 부지와 관련된 어등산 소송이 장기화 가능성이 적어지면서 착공시기가 불투명했지만, 이날 서진건설의 결정으로 새로운 물꼬가 터졌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이날 서진건설

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무된 분위기다.

신세계프라퍼티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스타필드 건립에서 가장 큰 문제인 부지의 걸림돌이 해결될 만큼 거기에 부합해 멋진 안을 28일 제출 목표로 이번 주 중 시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세계프라퍼티 임영록대표는 지난달 이르면 연말내, 늦어도 연초 사업계획서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날 연내에 제출하기로 최종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신세계를 프리미엄 백화점으로 대폭 확장하는 구상을 동시 추진하는 신세계그룹 입장에선 스타필드 사업계획서 제출이 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어등산에 스타필드가 들어서

기 위해서는 해결할 과제가 많다.

당장 사유지인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와는 달리, 어등산 부지는 공공부지만큼 공모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세계프라퍼티가 스타필드 건립구상 발표로 어등산을 '선점'한 셈이지만, 다른 유망사가 뛰어들 경우 경쟁이 불가피하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이미 북구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에 복합쇼핑몰을 짓겠다고 광주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라 어등산에 뛰어들이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롯데그룹은 어등산과 롯데칠성공장, 패밀리랜드 부지 등 3곳에 대해 이미 실사를 마친 상태로 여지가 있긴 하지만, 아직 사업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조일상 기자

경제위기·가뭄 대응...전남 882억 투입

'긴급 민생대책' 추진...농어업인 전기요금 등 지원

김영록 지사는 2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제위기와 오랜 가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한 긴급 민생대책 브리핑을 하고 예비비 등 882억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종합지원 대책과 7월 물가 민생안정 긴급 대책 이후 세 번째다.

먼저 최근 급등한 농사용 전기요금과 유가 등으로 경영상황이 어려운 농어업인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50%(84억원)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

또 지난 10월까지 지원해 농어업인들의 호응이 컸던 '면세유 인상액'

지원은 252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12월까지 2개월 연장 지원하기로 했다.

면세유 인상액 지원은 내년도 정부차원의 추가대책을 강력히 건의하고, 도 차원의 지원 검토도 함께 추진한다.

고금리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선 1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마련해 기업당 2억원 한도의 융자금과 이에 대해 연 4%의 이자 80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최대 50만원 이내의 스마트주문(오토) 시스템 등 디지털 기기 구입 지원에 10억원을 지원한다.

/박종배 기자

'폭설·한파' 공공 안 광주

잇단 교통사고·수도관 등파

연일 계속되는 폭설·한파 여파로 광주 지역에서 눈길 미끄러짐 사고와 등파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광주 도심에 내린 많은 눈이 녹으면서 아스팔트가 얼어 붙는 '블랙 아이스' 현상도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광주경찰청·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4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전남대학교 정문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차량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 4대가 잇따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대학 정문 사거리부터 신안교까지 약 500m구간에 걸쳐 출근길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10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동운고가 인근 도로에서도 한 대형 화물차가 블랙 아이스 등 미끄러운 오르막길을 오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자제와 연계해 연 도로에 대해 제설 작업을 벌였다.

이날 오전 출근길 광주 도심에서는 곳곳에서 녹다 만 눈길을 달리던 차량들이 추돌, 접촉 사고 등이 잇따랐다.

대부분 피해가 경미해 보험사 사고 접수로 종결됐지만 주요 간선도로 곳곳이 지체 현상을 빚었다.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면서 등파 피해도 발생했다.



전남 산림행정평가 대상에 담양군 전남도는 27일 순천 호남호국기념관 대강당에서 '2022년 산림행정평가 우수 시군 시상식'을 개최했다. 영예의 대상은 산불방지와 산사태 예방 대응 도시숲 조성·관리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담양군이 차지했다. /전남도 제공

전남, 남도 의병 역사자료 2694점 확보...414점은 구입

이소응·이근원, 간찰·시문·제문 등 소장가치 높아

전남도가 최근 '남도 의병 역사 박물관' 관 개관과 호남 의병 연구에 활용할 소장 가치가 높은 유물 415점을 구입하고 1484점을 기증·기탁 받아 총 2694점을 확보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2년 남도 의병 유물 공개 구입을 완료한 가운데 소장가치가 높은 다양한 유물

이 확보했다.

특히 올해 이기칭 기증자가 평생 수집한 의병·독립운동 관련 자료 346점을 선뜻 내놓아 남도 의병 역사 박물관 개장 준비에 큰 도움을 줬다.

기증 유물은 의병 이소응·이근원(이항로 제자) 등의 간찰·시문·제문이며 현재는 구하기 어려운 소중

한 자료다.

또 불갑사 만당 주지 스님은 이괄의 난(1624)이 발생했을 때 호남 의병이 앞장서 난을 진압한 기록이 담긴 '호남모의록'을 기증했다.

앞으로 호남 의병 활동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하기에 앞서 실시한 '남한 폭도 대토벌작전(1909년 9~10월 전남 의병 초토화 작전)' 사진첩도 구입했다.

/박종배 기자

고흥에 전국 첫 '어선건조지원센터' 들어선다

전남도 조선·검사·연구 집적화로 국내의 시장 선점 기대

고흥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선 건조지원센터가 들어선다.

전남도는 확보한 국비 400억원 등을 투입해 고흥 도양읍 일원에 조선소, 검사소, 연구소 등이 집적화된 '어선건조지원센터'를 조성한다고 27일 밝혔다.

센터는 집적화된 친환경·고효율 어선 건조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화재와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내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어선건조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데도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실제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국내 소형 조선 건조 시장은 5600억

원 규모이며, 이 중 어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3000억원(60%)에 달한다.

해외의 경우 인도네시아는 어선만 76만 척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국내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 필리핀은 넓은 목선을 최신 FRP선박으로 활발하게 교체가 이뤄지고 있어 국내 어선 건조 기술 수출 전망이 밝다.

이에 전남도는 총 사업비 490억원(국비 400억·군비 90억)을 들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고흥 도양읍 일원에 어선 건조 진수를 위한 몰드 제작시설을 비롯해 트레일러, 크레인 등을 갖춘 계획이다.

/박종배 기자

광주 자원봉사자 대회...33명 유공자 표창

광주시는 27일 오후 시청에서 2022 광주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강기정 시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회는 올 한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높이고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과 격려를 위한 자리다.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은 ▲대통령

령상 심영애씨 ▲국무총리상 김정순·이찬호씨 ▲행정안전부장관상 김석진씨 등 10명 ▲광주시장상 정성씨 등 20명이 수상했다.

봉사활동 누적시간에 따라 부여하는 자원봉사 영예인증에는 762명이 선정됐다. 강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헌신 덕분에 가뭄·폭설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따뜻한 광주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일상 기자

“두근두근 낭만여행 힐링영광”

영광군 YEONGGWANG-GUN

공 고

“전기사업법 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2”에 의거 아래와 같이 발전사업허가 신청에 따른 공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전사업 내용
 - 사업명칭 : (유)에경, (유)경아, (유)운승, 은지, 규철, 월평1호기, 월평2호기, 월평3호기, 월평4호기, 월평5호기
 - 신청자 : (유)에경태양광발전소 대표 정경애, (유)경아태양광발전소 대표 정경아, (유)운승태양광발전소 대표 정종민, 정은지, 김규철, 전청아2개소 전충호, 박평순2개소
 - 사업위치 :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평리 666-1
 - 사업규모 : 토지면적 - 총 14,801㎡, 용량 - 99kW×10개소, 사용면적 - 1개소당 464㎡ 10개소
- 사업기간 : 2023년 03월부터 20년간 운영
- 의견제출 : 전화 (062-575-4745), 이메일 (sb14745@hanmail.net)
- 기간 : 2022. 12. 28. ~ 2023. 01. 03 (1주간)

섬 겨울꽃 축제

1004섬, 에기동백에 물들다

22. 12. 9. ~ 23. 1. 31.

신안군 압해읍 분재정원

우리집 정수기 필터

필터관리 직접

우리 집 정수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최고 50% ~ 최저 30%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필터 하나에 1만원!!

(단, 기능성 알칼리 이온수기 필터 제외, 10%)

- 모든정수기 : 웅진, 청호, 아쿠아, 지엠, 대우, 한일, 코오롱 등
- 이온수기 : 바이온텍, 동양, 삼덕오존알카 등

우리집 정수기 좋은물! 필터관리가 소중한입니다.

- 1단계 전처리 침전필터(Sediment Pre-filter) 녹물, 흙, 모래, 오염물질 제거. 3개월 사용.
- 2단계 전처리 카본필터(Pre-Carbon Filter) 염소, 발암물질제거, 냄새제거. 6개월 사용.
- 3단계 역삼투압필터(Reverse Osmosis Filter) 세균, 미세한 불순물제거. 15~24개월 사용. 중공막필터(Ultra filtration Filter) 세균, 미세한 불순물제거. 1년 사용.
- 4단계 포스트카본(Post Carbon) 잔류 유해물질 제거. 물맛을 좋게한다. 9개월 사용

정수기필터 백화점 광주전남지사 주문및상담 062) 361-5456, 011-390-2229